

# 세계적 클래식 공연장 '아트센터 인천' 개관



아트센터 인천 조감도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롤모델로 최신 공법을 적용한 세계적인 규모의 클래식 공연장 '아트센터 인천'이 11월 송도 국제도시에 정식 개관했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0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인천에서 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성사될 경우 이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트센터 인천 버스 정류장을 신설 운영하는 등 교통, 편의시설도 지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아트센터 인천은 2천600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7층, 1천727석 규모로 지어졌다.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서의 객석 규모, 음향 설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마에스트로가 지휘하는 손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한 독특한 외관으로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도 서북쪽 바닷가에 위치해 바다를 품은 전망 또한 자랑거리다.

아트센터 인천은 국내 클래식 전용 홀로는 가장 최근에 최고급·최신 설계 공법을 적용해 건축됐다.

어떤 자리에 앉아도 음향의 편차를 느낄 수 없도록 콘서트홀 전체를 곡면으로 설계해 몰입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결무늬 천장에 벽체는 무대까지의 거리에 따라 두께와 재질이 다르고, 객석마다 등받이 높이도 다르게 설계됐다.

2009년 인천 송도 개발법인(NSIC)의 사회환원으로 시작된 아트센터 공사는 2016년 완공됐지만, 사업 시행자 간 갈등으로 기부채납이 지연돼 문을 열지 못했다.

지난 9월 포스코건설의 새 파트너가 NSIC의 계열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시는 해결의 물꼬를 트고 조속히 개관을 추진했다.

아트센터 인천은 지난 10월에 열린 두 차례의 테스트 공연에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지난 10월 24일 브라소닛 재즈 빅밴드와 BMK, 팝보컬리스트 크리시 등이 무대에 올랐고, 10월 30일에는 지휘자 최수열과 코리아체임버오케스트라가 공연했다.

특히 관객들은 콘서트홀의 우수한 음향과 시설에 만족감을 보이며 앞으로 아트센터 인천이 세계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도약하는 데 기대감을 나타냈다.

12월에 국내외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가들의 리사이틀, 오페라 갈라 콘서트 등이 추가로 열린다. ❶